

May 1966. Fortunately it fruited well and germinated perfectly at the our arboretum. Therefore brought a doubt on the *U. macrophylla* Nakai while our observations continued on it. According to the original description of *U. macrophylla*, Nakai had not chanced to see any fruit of it while late T. H. Chung illustrated it's samara in his Flora Koreana though he also mentioned no flowers seen. Therefore it seems to be the illustration of samara came from his imagination. On the other hand *U. macrocarpa* collected from the Lake Paroho does not go with descriptions known so far. It differs especially not only size of the leaves on the sterile shoot but also even those of fruiting branches, such as they are much larger than those known. I have not chanced to read original description or to see type specimen. If Rehder's explanation on this taxon goes well with the type specimen of it, the specimens collected from the Lake Paroho must put under the name of *U. macrophylla*. From the results made through our observation the latter is nothing different from *U. macrocarpa* except larger size of the leaf as well as slightly larger size of the samara, such as 2~3 cm long instead of 2~2.5cm long known. Therefore *U. macrophylla* will hard to stand as a species level but as its variety though it requires through study in compare with typical *U. macrocarpa*.

*Ulmus macrocarpa* var. *macrophylla*, grad. nov.

*Ulmus macrophylla* Nakai, Fl. Sylv. Kor. 19, 15(1932) et Synopt. Sketch Kor. Fl. 42(1952); Uyeki, Woody Pl. 23(1940); Kawamoto, Ill. For. Pl. 164(1943); T. Lee. Arb. Kor 60(1947), Ill. Woody Pl. (1969) et Bull. Kwanak Arb. no. 1, 23(1976); T. Chung, Kor, Fl. 1, 119 f. 238 (1957).

*Lespedeza cyrtobotrya* for. *alba*, for. nov.

Flora alba cetera ut typica

Typus; no. 1761-1, Herb. Coll. Agr. S.N.U.

*Youngia denticulata* var. *alpina*, var. nov.

Similat in forma cum *Y. sonchifolia* et *Y. denticulata* sed recedit a priori multo minor, capitula nutantia, achenia latiora et breve rostrata, posteriori folia incisa mit mucronulato-dentata.

Herba biennis, caulis 5~12cm altus, ramosus, ramis divaricato-ascendentibus, Folia radicalia sub anthesi viva aut semiemarcida, oblonga, margine incisa et mucronulatodentata, leviter revoluta. Folia caulina 3.5 cm longa, plus minus 1 cm lata, margine irregulariter incisa et revoluta, basi semi-amplexicaulia, supra viridia scabra. Involucrum calculatum, anguste tubulosum, 6 mm longum, medio 2 mm latum in sicco. Squamae biseriales, exteriores 4~6 in numero, 0.5mm longae, interiores 8 in numero, 6 mm longae, glabrae basi incrassato-carinata. Achenia nigra fusiformia 11~12 in numero, 3 mm longa, 0.7mm lata basi contracta apice brevirostra. longitudinaliter 10 costulata, costis leviter inaequalibus minute setulosa. Papus albus vel albescens, 3 mm longus, setis sigilatim caducis minute scabris cetera ut typica.

Typus; 3626-1, Herb. Coll. Agr. S.N.U

*Youngia* x *koidzumiana* Kitamura, st. nov.

*Youngia koidzumiana* Kitamura, Acta Phytot-Geobot. 11, 127 (1942), pro

### 水宮草(*Apocynum sibiricum* Jaquin)

1976年 여름철 어느날 校內體育大會가 있어 準備運動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다. 며칠후면 林學科卒業班과 같이 智異山實習에 參加하여야 하겠기에 汝矣島 嶺의 漢江 白砂場을 오르내리면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여뀌, 소리쟁이, 개피, 명아주 그리고 참새귀리 등이 여기저기 茂盛한 가운데 때로는 興味를 끌만한 식물들이 발견 되었다. 눈앞에 보이는 漢江은 江이라기 보다 探砂의 뒷처리를 하지 않은 탓으로 그 數를 알아보기 어려울만큼의 물웅덩이와 자갈더미가 散在하여 늪지대 같이 보였다. 물가에 따라 茂盛한 개여뀌는 낮은 모래더미를 완전히 덮었으며 마치 여뀌발같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물웅덩이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신을 벗어 들고 도착한 곳은 작은 섬처럼 생긴 자갈더미였다. 자갈더미는 길이 15 m, 나비 5 m 정도로서 가장 높은 곳은 물에서 1.5 m 내외쯤 되고 자갈 틈에 모래와 다소의 흙이 박혀서 地盤이 굳게 다져진 곳이다. 물이 닿는 곳에는 개여뀌, 물쭉이 우거지고 개피와 개밀 그리고 몇 포기 소리쟁이가 보였다. 자갈더미의 윗면은 풀이 자라지 못하고 그 中央에 지름 2 m 정도쯤 자리잡은 灰青色植物의 작은 群叢이 있었다.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Apocynum*屬의 未知種이었다. 꽃도 열매도 볼 수 있는 훌륭한 표본이었다.

*Apocynum*은 아시아, 구라파 南部 및 北美에서 25종이 報告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개정향풀이 忠北 丹陽 근처의 漢江 가의 砂地에서 자라고 북쪽으로는 西海岸을 따라 장산곶 근처와 鎭南浦等 海岸 가까히 자라고 있다. 毒性이 있는 植物이므로 漢藥材로서의 可能性도 있지만 觀賞的價値가 인정된 植物이다. 이번에 발견된 식물은 *Apocynum sibiricum* Jaquin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타났고 美國에서는 一部 觀賞植物로 심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식물은 美國과의 往來가 빈번해짐에 따라 묻어왔거나 갖어온 것에서 번져났을 것이다. 種子는 긴털이 있고 또 가볍기 때문에 다른 物體에 붙어가기도 하지만 한강에서 자라는 것은 洪水때에 떠 내려가다가 걸려서 자라기 시작 하였을 것이다. 자갈더미는 洪水 때에는 물에 잠기기 때문에 모래와 더불어 흙이 채여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다. 냇가에서 자라는 점으로 보아 環境의인 水分要素가 많이 필요한 듯하지만 자갈밭에서 茂盛하는 점은 砂丘植物로서 훌륭한 資源의 하나인듯 하다. 질은 灰青色과 더불어 더욱더 群生되는 점이 觀賞價値를 높여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식물중 本植物과 關聯이 있는 種類는 정향 및 개정향이라는 식물뿐이므로 이와는 달리 물 가운데 혼자 떨어져 자라는 작은 섬같은데서 자라는 모습을 취하여 水宮草란 이름을 부쳐서 발표한다.

### 무주나무(*Lasianthus japonicus* Miquel)

漢峯山 남쪽 山麓 한란 自生地 근처의 常綠樹林에서 朴正德先生이 처음 採集하여 보내왔다. 수정목(*Damnacanthus*) 비슷하게 생겼으나 작은 표본으로는 알수가 없어서 뿌리와 더